

“ 내자신과 환경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연구 · 노력하는 최고의 환경기술인이 되자 ”

안녕하십니까?

대구 · 경북환경기술인협의회 10대 회장으로 선임된 김성기입니다.

수년간 환경인의 한사람으로 활동하다가 이렇게 막중한 책무를 맡게 되어 그 책임의 무게를 한층더 느껴봅니다.

돌이켜 보면 많은 우리들의 환경기술인 선배님들의 노고와 열정의 가르침 속에 오늘의 자리가 있도록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선배님들의 노력의 결과가 헛되지 않게 하기위하여 진정 발로 뛰는 환경기술인이 되고자 다짐해 봅니다.

짧지 않은 환경기술인 생활 속에서 환경기술인이라면 누구나 한번씩 느껴보던 좌절감, 소외감, 외로움이 없지 않았지만, 사명감과 책임을 가지고 한가지 한가지의 문제점을 해결한 뒤의 성취감을 가져본 적도 많았습니다.

환경기술인 여러분!

반복되는 경제위기의 빌미 속에서 희생되는 환경정책의 부실이 맡은바 임무를 묵묵히 실천하는 우리 환경기술인들이 외면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소외되고 의기소침(意氣銷沈)해져 가는 우리환경기술인의 권익이 보장되고 신바람나는 우리 환경관리인이 되고자 한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공부합시다! 도전합시다!”

우리 환경기술인의 위상을 지키고 내 자신의 존재를 확인시키려면 자신의 노력을 통한 자기분야에서의 최고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조직에 보탬이 되어야 합니다.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만이 나를 지키고 조직을 위함입니다.

우리의 지식, 정보수준을 높여서 공정개선, 신기술 개발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이익이 창출될때만이 우리의 위상이 보장되고 인정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환경기술 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장담해봅니다.



김성기

대구 · 경북환경기술인협의회장

환경기술인 여러분!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누워 있으면 홍시가 내입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발로 감나무를 차던지 장대를 높이 들어 흔들어야지만 맛있는 홍시를 맛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노력하고 연구하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한번 강조드립니다. 현실의 위기와 어려움에 너무 편승되지 말고 지속적인 개선의지와 실천의 노력으로 공부하는 자세를 가져봅시다.

내자신과 환경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연구하고 노력하는 최고의 환경기술인이 됩시다.

감사합니다. ☺